

#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크기> 명사 대조 연구

- <크기> 명사의 한·불 병렬 대상부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이성현\*

- 차례 -

1. 머리말
2. 언어 대조 연구와 대상부류 이론
3. <크기> 명사의 통사·의미 속성
4. <크기> 명사의 하위부류
5. 맷음말

## 1. 머리말

이 글은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크기(grandeur)> 명사들을 대상으로 이들 명사의 통사, 의미 속성을 밝히고 그 대상부류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서, 두 언어 혹은 그 이상의 다국어 간의 대조 연구에 대상부류 이론이 유효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보이는 것도, 부차적이지만, 이 글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이다.

<크기> 명사란 인간이나 사물 등 어떤 대상에 부여된 속성을 중 측정의 대상이 되는 속성들을 칭하는 명사들로서 한국어의 ‘길이’, ‘높이’, ‘넓이’, ‘무게’, ‘힘’ 등의 어휘들과 프랑스어의 ‘longueur’, ‘hauteur’, ‘surface’, ‘poids’, ‘force’ 등의 어휘들을 말한다. 그런 까닭에, 이들 <크기> 명사들은 측정행위나 그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들과 빈번히 결합한다. 예컨대, 한국어의 <크기> 명사들은 ‘재다’, ‘측정하다’ 등 측정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들이나 자신이 표상하는 크기의 값을

---

언어학 제 67 호 (2013. 12. 31: 73-99),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X 센티미터’, ‘X 미터’, ‘X 제곱미터’, ‘X 평’, ‘X 그램’, ‘X 킬로그램’ 등 다양한 단위표현들과 빈번히 그리고 특징적으로 결합한다.

- (1) a. 민우가 책꽂이의 (길이 + 높이 + 폭)을 졌다.  
 b. 선생님이 학생들의 (키 + 가슴둘레 + 몸무게)를 측정했다.  
 c. 기능공이 새 기계의 (압력 + 부피 + 무게)를 (졌다 + 측정했다).
  
- (2) a. 그 집은 넓이가 (30 평 + 84 제곱미터)이다.  
 b. 마을 뒷산의 산책로는 총 길이가 (1500 미터 + 3 킬로미터)란다.  
 c. 이 자루의 무게는 (800 그램 + 3 킬로그램 + 1 톤)이다.

이는 프랑스어 <크기> 명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이들 명사들은 측정 행위동사인 *mesurer*<sup>1)</sup>나 크기를 나타내는 형용사 및 크기의 값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단위표현들과 빈번히 결합하는 것이 특징이다.

- (3) a. Ina a mesuré la (longueur + largeur + profondeur) du fleuve.  
 b. Qui a mesuré (la hauteur + l'altitude) de cette montagne ?  
 c. Faute de moyens, ils ne peuvent pas mesurer (le poids + la puissance + la force) de cette machine.
  
- (4) a. Cet étang a une (largeur + profondeur) de 5 mètres.  
 b. Ce bâtiment a une (hauteur + longueur) de plus de 50 mètres.  
 c. Ce courant a une intensité de 4 ampères.  
 d. Ce sac a un poids de (500 grammes + 20 kilos).

그런데, 이들 <크기> 명사가 해당 크기를 표상하기 위하여 문장에 실현되는 양상이 한국어와 프랑스어에서 늘 유사하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한국어 <크기> 명사들은 해당 크기와 관련된 값을 나타내는 형용사들과 쉽게 결합할 수 있는데 반해 프랑스어 명사들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다.

1) 동사 *mesurer*는 술어동사 용법과 기능동사 용법을 모두 갖는다. 전자는 실제 측정하는 행위를 표상하는 경우로서 (3)의 예들이 이에 해당된다. 후자는 크기의 값을 표현하는 술어를 현동화하는 기능동사로 쓰이는 경우를 말한다. (ex.: Ce fil mesure 5 mètres de longueur.) 여기서는 술어용법의 *mesurer*를 말하는 것이다.

- (5) a. 우리 동네 공원은 넓이가 (넓다 + 상당하다).  
     b. 이 막대는 길이가 (길다 + 놀랍다)  
     c. 그 가방은 무게가 (무겁다 + 대단하다)  
     d. 우리 학교 시계탑은 높이가 (높다 + 엄청나다).
- (6) a. Ce champ a une étendue (\*étendue + considérable).  
     b. Ce chemin a une longueur (\*longue + importante).  
     c. Ces bagages ont un poids (\*lourd + surprenant).  
     d. La tour Eiffel a une hauteur (\*haute + incroyable).

또한, 한국어 <크기> 명사들은 단독으로 기능형용사 ‘있다’와 결합하여 해당 크기의 정도가 강함을 의미<sup>2)</sup>할 수 있으나 프랑스어 명사들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다.

- (7) a. 그 성벽은 높이가 (있다 ≈ 높다).  
     b. 이 저수지는 깊이가 (있다 ≈ 깊다).  
     c. 이 짐이 무게가 (있다 ≈ 무겁다).  
     d. 저 목장은 넓이가 (있다 ≈ 넓다).
- (8) a. ?\*Cet immeuble a de la hauteur. ≠ Cet immeuble est haut.  
     b. ?\*Cet étang a de la profondeur. ≠ Cet étang est profond.  
     c. ?\*Ce carton a du poids. ≠ Ce carton est lourd.  
     d. ?\*Ce terrain a de l'étendue. ≠ Ce terrain est étendu.

위의 (8)의 예들이 보여주듯이, 프랑스어의 <크기> 명사들은 기능동사 avoir와 단독으로 서술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고 비문법적이다. 이들 명사가 구성하는 문장이 대응되는 형용사 술어 구문과 같은 뜻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들 명사가 표상하는 크기값의 존재를 명기하는 형용사, 예컨대, certain, beau,

2) 이와 관련하여 (7)의 예문에서 ‘있다’를 ‘없다’로 대체하였을 때의 의미해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유의형용사인 ‘높다’, ‘깊다’, ‘무겁다’, ‘넓다’의 반의어로의 해석은 어색한 반면, 유의형용사의 부정문 형태로의 해석은 가능하다.

- (7') a. 그 성벽은 높이가 없다 (≈ 높지 않다 ; ?낮다).  
     b. 이 저수지는 깊이가 없다 (≈ 깊지 않다 ; ?얕다).  
     c. 이 짐이 무게가 없다 (≈ 무겁지 않다 ; ?가볍다).  
     d. 저 목장은 넓이가 없다 (≈ 넓지 않다 ; ?좁다).

grand 등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 (9) a. Cet immeuble a une (\*E + certaine + belle) hauteur.  
≒ Cet immeuble est haut.
- b. Cet étang a une (\*E + certaine + belle) profondeur.  
≒ Cet étang est profond.
- c. Ce carton a un (\*E + certain + grand) poids.  
≒ Cet carton est lourd.
- d. Ce terrain a une (\*E + certaine + belle) étendue.  
≒ Ce terrain est étendu. (vaste)

이렇게 크기를 지칭하는 점에서 공통적인 의미속성을 갖는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어휘들이 언어에 따라 서로 다른 통사행태를 보인다. 이는 두 언어 간의 어휘 및 대응표현 대조 연구가 의미나 통사 등 한 측면에만 국한되어서는 의미 있고 유효한 결과를 산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어휘 및 대응표현의 대조 연구는 의미와 통사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우리가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크기> 명사 대조 연구를 위해 이들 명사의 병렬 대상부류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이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소개되고 또 그렇게 드러났듯이<sup>3)</sup>, 대상부류 이론은 특정 의미를 공유하는 어휘들의 공통적 통사행태에 따라 어휘들의 위계적 집합(대상부류)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부류의 구축과정 자체가 어휘들의 통사·의미 속성을 체계적으로 분류, 기술하는 과정이 된다. 즉, 한국어와 프랑스어 각각에 대해 “크기”라는 의미를 공유하는 어휘들의 대상부류를 구축하는 과정 자체가 두 언어 <크기> 명사들의 통사·의미 속성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조, 기술하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는, 다음에서, 우선 <크기> 명사 연구의 배경이 되는 대상부류 구축 과정과 현황, 그리고 관련 쟁점을 살피고 정리할 것이다. 그런 다음, <크기> 명사를 그 통사·의미 속성에 따라 정의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의미속성, 즉 크기의 유형과 또 이와 관련된 통사행태에 따라 보다 세분된 하위부류들로 구분됨을 보일 것이다. 이들 각 과정은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경우를 비교,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

3) 프랑스어의 경우 Le Pesant, D. & Mathieu-Colas, M. (1998), Gross, G. (1992, 1994, 1996, 2012), 한국어의 경우 이성현 (2001, 2006, 2010)을 참조.

## 2. 언어 대조 연구와 대상부류 이론

### 2.1. 어휘 기술의 두 흐름 : 문장층위의 기술과 통사와 의미의 통합 기술

정보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광범위한 확산에 따라, 어떤 언어이론에서든, 언어의 전산처리를 염두에 둔 체계적이고 형식적인 언어 기술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이는 어휘문법(lexique-grammaire) 이론과 대상부류(classes d'objets) 이론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휘문법 이론은 최소 유의미 단위는 유리된 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단문<sup>4)</sup>이라는 입장에서 술어가 갖는 통사속성, 즉 분포속성과 변형속성을 단문층위에서 기술하고 이를 통해서 한 언어의 어휘(부)를 구축하고자 한다.<sup>5)</sup> 한편 대상부류 이론은 어휘문법 이론의 기본 틀을 받아들이면서도 이 이론의 어휘기술에서 미흡하게 다루었던 의미 측면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보다 완결된 형태의 어휘부 구축을 수행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통사정보 못지않게 체계적이고 형식적인 의미정보를 어휘 기술에 제공함으로써 통사정보와 의미정보를 보다 균형적으로 갖춘 어휘 기술을 추구한다.<sup>6)</sup>

대상부류 이론에 입각한 연구들은, 따라서, 술어 기능을 하는 어휘이든 논항 기능을 하는 어휘들이든 간에 의미속성과 통사속성을 상호 연관성 속에서 상세히 밝히고 이에 따라 어휘들을 분류, 기술한다. 즉, 대상부류 이론에서 특정 언어의 어휘부를 기술하는 것은 해당 언어의 어휘들이 보이는 통사속성을 반영한 의미부류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의미부류를 대상부류라고 한다.<sup>7)</sup>

### 2.2.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대상부류 구축 현황 및 쟁점

#### 2.2.1. 프랑스어 대상부류 구축 현황

대상부류 구축작업은 파리 13대학 LLI<sup>8)</sup> 연구소를 중심으로 먼저 프랑스어를

4) 단문은 하나의 술어와 그것의 고유논항들로 구성된다. cf. Gross, M.(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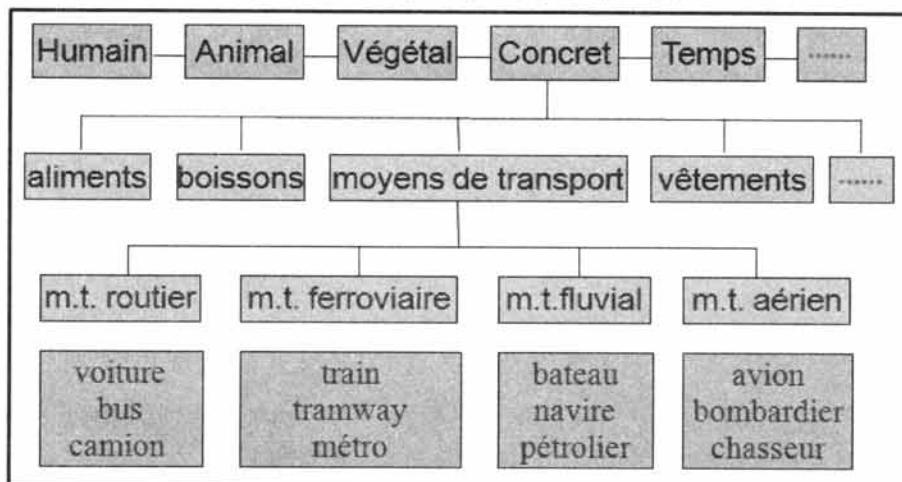
5) Gross, M. (1975, 1981).

6) Le Pesant, D. & Mathieu-Colas, M. (1998), Gross, G. (1992, 1994, 1996, 2012).

7) 대상부류 이론 및 실제 구축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Lee, S.-H. (2001), 이성현 (2001, 2006, 2010) 등을 참조.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그 과정은 ‘新의미자질(nouveaux traits)’ 혹은 ‘대부류(hyperclasses)’라 불리는 최상위 부류 10개를 설정하고, 이들 각각에 대해 ‘대상부류(classes d'objets)’라 불리는 하위부류를 중층적, 위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다음 [표 1]에서 최상층위에 보이는 부류들이 新의미자질들이고 그 아래 층위들에 나타나는 부류들이 대상부류에 해당된다.

【표 1】 프랑스어 대상부류 체계



신의미자질은 기존 의미자질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통사적 기준에 따라 정비, 보완된 10개의 부류, 즉 [humain], [animal], [végétal], [concret], [locatif], [temps], [humain prédictif], [état], [action], [événement] 등을 말하는데<sup>9)</sup>, 이 중 앞의 6개는 비술어 명사들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논항의미자질, 나머지 4개는 술어 기능을 하는 문법범주들의 어휘 의미와 관련되는 술어의미자질이다. 한편, 대상부류는 신의미자질의 하위부류들로서, 의미자질로는 분할과 인식이 불가능했던 세밀한 의미영역을 표상한다.

프랑스어 대상부류 구축 작업은 논항명사로부터 시작하여 술어명사로 확장되었고, 술어명사의 대상부류 구축은 [사건 événements], [행위 actions], [상태 états] 부류의 순으로 수행되고 있다.<sup>10)</sup>

8) Laboratoire de Linguistique Informatique. 현 LDI 연구소(Lexique, Dictionnaire, Informatique)의 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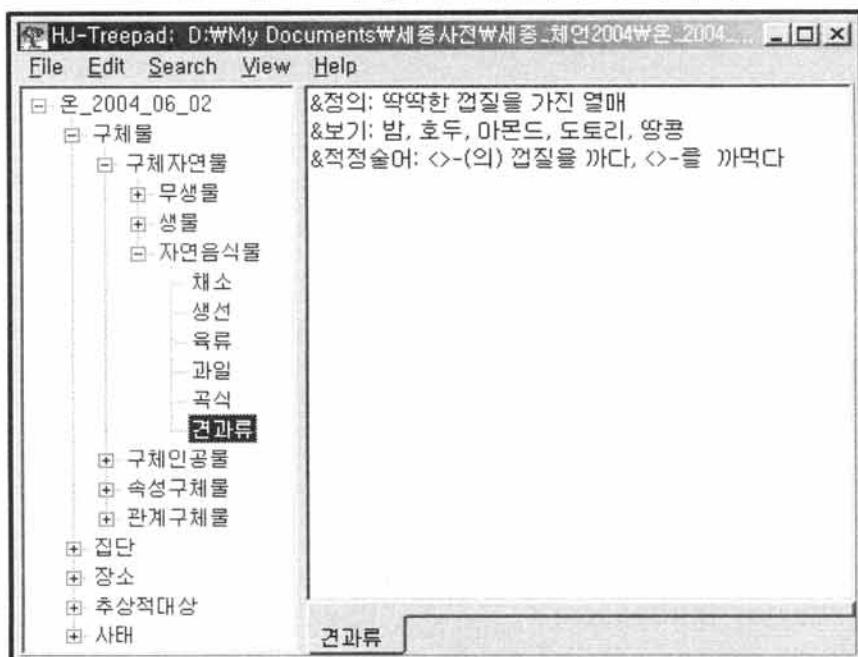
9) 대상부류 이론에서는 의미자질은 '[ ]', 대상부류는 '< >'로 표시함. 그리고 이를 부류는 각각 [인간], [동물], [식물], [구체물], [장소], [시간], [술어인간], [상태], [행위], [사건]을 말한다.

10) [사건] 부류는 Lee, S.-H. (2001), [행위] 부류는 Eshkol, I. (2002)과 Lamprou, E. (2005),

### 2.2.2. 한국어 대상부류 구축 현황

한국어의 대상부류 구축 작업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수행된 『세종 전자사전』<sup>11)</sup>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세종 의미부류」라 명명된 한국어 대상부류는 G. Gross의 대상부류 이론에 따르되 한국어 어휘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원칙하에 구축되었는데, 다음 [표 2]에서처럼, <구체물>, <집단>, <장소>, <추상적대상>, <사태> 등 다섯 개의 최상위부류와 그 하위부류 576개, 총 581개의 부류가 최소 2층위, 최대 7층위의 위계적 구성을 갖는다.<sup>12)</sup>

【표 2】 한국어 대상부류 체계 : 세종 의미부류



「세종 의미부류」는 『세종 전자사전』의 어휘 기술 시에 뜻풀이를 대신하여 표제어 의미를 형식적으로 표상하고, 또한 표제어가 술어인 경우 해당 표제어의 논항에 대한 선택제약을 기술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

[상태] 부류는 Kokochkina, I. (2004)를 참조.

11)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순차적으로 주관한 「21세기 세종계획」의 일환으로 구축된 현대 한국어 전자사전이다. 총 60만 항목의 표제어를 담은 이 사전은 현대 한국어 어휘의 체계적인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용도의 전산 처리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그 기술의 획기적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는 대규모 범용 한국어 전자사전을 지향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성현 (2009)를 참조.

12) 「세종 의미부류」의 구축과정과 활용에 대해서는 이성현 (2007)을 참조.

### 2.2.3. 한·불 병렬 대상부류 구축의 쟁점

대상부류 구축과 관련한 쟁점은 한국어에서나 프랑스에서나 모두 이미 구축된 부류들의 보완 및 세분화를 통해서 기존 대상부류 체계를 개선하고 완성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프랑스어의 [상태(états)] 부류와 한국어의 [추상적대상] 부류를 정비하고 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프랑스어의 [상태] 부류에 속하는 술어 어휘의 성격은 다른 술어부류의 어휘들에 비해 상당히 비균질적이다. 예를 들자면, maladie나 ivresse, fatigue와 비교해서 patience, courage, intelligence 등을 똑같이 [상태]에 속하는 명사로 보기는 쉽지 않다. couleur, bleu, rouge나 direction<sup>13)</sup>, est, ouest, sud 등과 같은 명사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유형의 명사들이 [사건]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어휘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 부류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 하위부류들의 이질적 속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가 된다. 프랑스어 [상태] 부류의 대상부류 구축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고 그 진척이 더딘 것은 사실 상기한 어려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상황은 한국어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어 대상부류 중 최상위 부류의 하나인 <추상적대상>의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된다. 이 부류에는 ‘성격’, ‘색깔’, ‘모양’, ‘방향’, ‘방법’, ‘방식’, ‘크기’, ‘규모’, ‘상황’ 등 추상명사이면서도 술어성이 뚜렷하지 않은 명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 명사들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이는 ‘빨강’, ‘파랑’, ‘사각형’, ‘원형’, ‘동쪽’, ‘서쪽’, ‘미봉책’, ‘미팔식’, ‘광폭’, ‘심층’, ‘호황’, ‘불황’ 등은 [상태]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런 까닭에, 이 두 유형의 명사들을 상호 관련성 하에서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연구, 기술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어 대상부류 체계의 보완과 개선은 물론, 한·불 병렬 대상부류 구축을 위해서 더욱 그러하다. <크기> 명사에 대한 우리의 대조 연구는 바로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13) 여기서 direction은 ‘방향’의 의미로 쓰인 경우를 말함.

### 3. <크기> 명사의 통사·의미 속성

#### 3.1. <크기> 명사와 <인식속성> 부류

##### 3.1.1. <인식속성>과 <부여속성>

지난 일련의 연구들에서 우리는 [상태] 부류 하에 <속성(propriétés)> 부류를 설정하고, <속성> 부류를 다시 <인식속성(propriétés identifiantes)>과 <부여속성(propriétés attributives)>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sup>14)</sup> <인식속성>은 명사 ‘색깔’, ‘모양’, ‘경치’처럼 말하고자 하는 속성의 유형을 한정해주는 속성으로 정의되고, <부여속성>은 ‘파랑’, ‘사각형’, ‘절경’ 등의 경우처럼 그 자체가 대상이 갖는 속성을 표상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구분은 프랑스어에서도 유효한데, ‘couleur’, ‘forme’, ‘paysage’ 등은 <인식속성> 명사, ‘bleu’, ‘carré’, ‘pittoresque’ 등은 <부여속성> 명사로 분석된다. 다시 말하자면, <인식속성>은 문제가 되는 대상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되는 속성들로서 언급할 속성을 명기할 필요가 있을 때 문장 상에 나타나는 속성이고, <부여속성>은 해당 속성의 유무에 대한 정보 자체가 대상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되는 속성이다. 즉 <부여속성>은 <인식속성>의 속성값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 3.1.2. 한국어 <인식속성> 명사의 통사속성

이러한 의미(혹은 기능)의 차이는 통사행태의 차이로도 나타나는데, 한국어의 경우 <인식속성> 명사는 다음과 같은 통사행태를 보이는 명사들로 정의된다.

【표 3】 한국어 <인식속성> 명사의 통사속성<sup>15)</sup>

- ① 기본구문 : N<sub>0</sub>-이 Npréd<sub>1</sub>-이 (Adj + Npréd<sub>2</sub>-이다)
- ② 과정적 사행을 전제하는 시간표현과의 결합 불가능성
- ③ 의문문 “N<sub>0</sub>-이 Npréd-이 어떠하니?”에의 출현 가능성
- ④ <부여속성> 부류와의 공기 가능성 : 의미적 상관관계를 갖는 명사 술어 구문 및 형용사 술어 구문의 존재 여부

14) Lee, S.-H. (2003, 2009).

15) 여기서 Npréd는 술어명사(nom prédicatif)를 뜻하고 Adj.는 형용사를 칭한다.

한국어 <인식속성> 명사들은 무엇보다도 “N<sub>0</sub>-이 Npréd<sub>1</sub>-이 (Adj + Npréd<sub>2</sub>-이 다)” 구문의 Npréd<sub>1</sub>의 위치에 나타나는 명사들로 정의될 수 있다.

- (10) a. 이 집은 색이 (빨갛다 + 빨강이다 + 빨간색이다).
- b. 내 동생 시계는 모양이 (동그랗다 + 원형이다).
- c. 이 산이 경치가 (아름답다 + 절경이다).

이 점에서 <부여속성> 명사들과 구별되는데, <부여속성> 명사들은 “N<sub>0</sub>-이 Npréd-가 있다” 혹은 “N<sub>0</sub>-이 Npréd-이다” 구문의 Npréd위치에 나타나는 통사행태를 보인다.<sup>16)</sup>

- (11) a. 민우는 (재능 + 용기 + 끈기)-가 있다.
- b. 민아는 (미인 + 효녀 + 천재)-이다.

<인식속성> 명사는 속성명사의 하위부류에 속하는 만큼 시간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속성명사의 자질을 승계 받는다. 따라서 사행의 시간적 전개, 즉 과정적 (processif) 성격을 전제하는 시간표현들과의 결합이 불가능하다.<sup>17)</sup>

- (12) a. 그 (\*색 + \*모양 + \*경치) 동안에, 나는 오두막집을 그렸다.
- b. 나는 그런 (\*색 + \*모양 + \*경치) 중의 할아버지 댁을 좋아한다.

또한 <인식속성> 명사는 대응되는 <부여속성>을 포함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의문사 ‘어떠하니’로 구성된 의문문에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sup>18)</sup>

16) <부여속성>에 속하는 명사들도 [표 3] ⑦ 구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ex: 민우는 재능이 뛰어나다/최고이다.) 하지만, 이때 형용사나 제 2술어명사의 성격이 <인식속성> 명사의 경우와는 다르다. 즉, 부여속성의 ‘정도가 높음’만을 표현해줄 뿐 특정 속성을 부여하고 명시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

17) Anscombe (1995:45)는 [상태]를 <영구적/구성적 상태(états permanents et constitutifs)>와 <우연적/일시적 상태(états accidentels et transitoires)>로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는 blondeur, minceur, gentillesse, intelligence, méchanceté, etc.처럼 인간이나 사물들에 부여된 속성을 혹은 이것들에 가해진 판단들과 같이 비역동적(비과정적) 사행을 가리키므로 시간표현과는 결합할 수 없다고 보았다.

18) <부여속성> 명사의 경우도 ‘어떠하니’ 의문문에 나타날 수가 있다. 하지만, 그때는 <부여속성>에 속하는 속성이 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제시된 <부여속성>의 정도에 관한 정보가 답으로 제시된다.

- (13) a. 그 집은 (색이 + ?\*E) 어떠하니? - 빨간색이야.  
 b. 네 시계는 (모양이 + ?\*E) 어何处니? - 사다리꼴이야.  
 c. 그 산은 (경치가 + ?E) 어何处니? - 절경이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부여속성>과 관련한 답을 얻을 수도 있다.

- (14) a. 그 집은 어何处니? - (비싸 + 낡았어 + 커 + 좁아).  
 b. 네 시계는 어何处니? - (비싸 + 오래됐어 + 좋아).

<인식속성> 명사들은 자신들과 의미적 상관관계를 갖는 <부여속성> 명사와 <부여속성> 형용사들을 갖는다. 이들 <부여속성> 술어들은 상기 [표 3]의 기본 구문의 Adj나 Npréd<sub>2</sub>의 자리에 나타나서 <인식속성> 명사들에 의해 제한 혹은 도입되는 속성들에 대해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속성)값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sup>19)</sup>

- (15) a. 이 가방은 색깔이 (파랗다 + 파랑이다 + 파란색이다 + 청색이다).  
 b. 내 동생 시계는 모양이 (동그랗다 + 원형이다).  
 c. 이 산이 경치가 (아름답다 + 절경이다).

<인식속성> 명사와 <부여속성> 술어 간의 이같은 상관관계는 <크기> 명사 등 <인식속성>의 다양한 하위부류를 분할, 설정하는데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 3.1.3. 프랑스어 <인식속성> 명사의 통사속성

프랑스어 <인식속성> 명사들도, 한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통사행태를 근거로 정의할 수 있다.

- ex) 철수는 용기가 어때? - \*용감해  
 - (용기가) 많아/없어/대단해.

19) <부여속성> 명사들의 경우에도 형용사나 명사와 결합할 수 있다. [표 3]의 기본구문의 Npréd<sub>1</sub> 자리에 나타나서 Adj나 Npréd<sub>2</sub>와 결합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각주(19)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때 Adj나 Npréd<sub>2</sub>는 구체적인 속성을 부여해주는 술어 기능보다는 주어진 속성의 정도를 표현하는 기능형용사 정도의 기능만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ex: 이나는 미모가 출중하다/비교불가이다.)

【표 4】 프랑스어 &lt;인식속성&gt; 명사의 통사속성

- ① 기본구문 : N<sub>0</sub> avoir Dét Npréd (\*E + Adj)
- ② 과정적 사행을 전제하는 시간표현과의 결합 불가능성
- ③ Quel 의문문 구성
- ④ 의미적 상관관계를 갖는 형용사 술어 구문의 존재 여부

프랑스어 <인식속성> 명사들은 우선 ‘N<sub>0</sub> avoir Dét Npréd Adj’ 구문의 Npréd 자리에 나타나는 명사들로 정의된다. 이때 부가사 형용사를 동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16) a. Cette maison a une couleur (\*E + crue).  
 b. Cette boîte a une forme (\*E + carrée).  
 c. Cette région a un paysage (\*E + admirable).

이러한 통사적 특성은 <인식속성> 명사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인식속성>은 언급하고자 하는 대상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되는 속성이다. 그런 만큼 이를 명기하는 것만으로는 서술작용이 완료되지 않고 환기된 <인식속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으로써만 완성된다. 사실 그 자체로 서술작용을 완료할 수 있는 <부여속성> 명사들의 경우에는 부가사의 동반 없이도 avoir 기능동사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

- (17) a. Max a (de la gentillesse + de la modestie + de la sagesse).  
 b. Max a une grande (gentillesse + modestie + sagesse).

프랑스어 <인식속성> 명사들은 또한 속성명사의 하위부류로서 사행의 과정적 (processif) 성격을 전제하는 시간표현들과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 (18) a. une (\*brève + \*courte) couleur  
 b. une forme (\*prolongée + \*durable)  
 c. un (\* long + \*brusque) paysage
- (19) a. Au cours de (\*sa forme + \*sa couleur + \*son paysage), Paul a vendu sa maison de campagne.

- b. Avant (\*sa forme + \*sa couleur + \*son paysage), je n'aimais pas ce village.

한편 프랑스어 <인식속성> 명사들은 의문문 구성 시에 의문사 QUEL과 결합하고 그때의 답은 항상 관련 <부여속성> 술어로 구성이 된다.

- (20) a. Quelle est (??E + la forme de) ce colis ?  
 [⇒ Ce colis est rond.]
- b. Quelle est (??E + la couleur de) cette voiture ?  
 [⇒ Cette voiture est rouge.]
- c. Quelle est (??E + la caractéristique de) cette région ?  
 [⇒ Cette région est pittoresque.]

<인식속성> 명사의 출현이 없는 의문문의 경우 의문사는 comment이고, 그때의 답으로는 다양한 <부여속성>과 관련된 문장들이 제시될 수 있다.

- (21) Comment est ce sac ?  
 [⇒ Ce sac est (joli+grand+cher+lourd + de 2 kg +...).]

이는 인식속성명사로 forme나 couleur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프랑스어 <인식속성> 명사들도 자신이 지칭하는 <인식속성>과 관련된 다양한 속성값, 즉 <부여속성>과 상관관계를 맺고 이들을 지칭하는 어휘들과 빈번히, 그리고 특징적으로 결합한다.

- (22) a. Cette boîte a une forme (triangulaire+carrée+ronde).  
 b. Cette boîte est d'une forme (triangulaire+carrée+ronde).  
 c. La forme de cette boîte est (triangulaire+carrée+ronde).
- (23) a. Cette jupe a une couleur (bleue+jaune+rouge).  
 b. Cette jupe est d'une couleur (bleue+jaune+rouge).  
 c. La couleur de cette jupe est (bleue+jaune+rouge).

이러한 상관관계는 프랑스어의 경우에도 <인식속성>의 하위부류 설정 시에 주요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couleur, forme, caractéristique이 avoir나 être 등의 기능동사구문에 나타날 때 부가사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것은 이들 명사가 <인식속성>을 지칭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인식속성>을 나타내는 명사들은 대부분 적정명사 noms appropriés 혹은 분류명사 noms classifieurs<sup>20)</sup>로 분석되던 명사들로서 크기명사 noms de grandeur<sup>21)</sup>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 3.2. 한국어 <크기> 명사의 통사속성

<크기> 명사가 인간이나 사물 등 어떤 대상에 부여된 속성을 중 측정의 대상이 되는 속성을 칭하는 명사들인 만큼 한국어 <크기> 명사는 우선 <인식속성>으로서의 통사행태를 보인다. 그리고, 측정의 대상이 되는 속성이라는 의미와 관련한 통사행태들도 아울러 보인다. 즉, 한국어의 <크기> 명사들은 ‘재다’, ‘측정하다’ 등 측정행위를 지칭하는 동사들이나 <크기>의 값을 표현하는 <측정단위> 명사들과의 결합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5】 한국어 <크기> 명사의 통사속성

- ① 기본구문 : N<sub>0</sub>-이 Npréd<sub>1</sub>-이 (Adj + N<측정단위>-이다)
- ㉡ 동사 ‘재다’ 및 ‘측정하다’와의 결합 가능성
  - ⇒ N<sub>0</sub>-이 N<sub>1</sub>-의 Npréd-를 (재다 + 측정하다)
- ㉢ 과정적 사행을 전제하는 시간표현과의 결합 불가능성
- ㉣ 의문문 “N<sub>0</sub>-이 Npréd-이 (어떠하니 + 얼마나)?“에의 출현 가능성
- ㉤ <크기부여속성> 부류와의 공기 가능성 :
  - ⇒ <크기>의 값을 나타내는 명사 및 형용사 술어와의 결합

한국어 <크기> 명사는 <인식속성> 부류에 속하는 만큼, 이 부류를 특징짓는 “N<sub>0</sub>-이 Npréd<sub>1</sub>-이 (Adj + Npréd<sub>2</sub>-이다)” 구문의 Npréd<sub>1</sub>의 위치에 나타난다. 그러면서도 그때 공기하는 Npréd<sub>2</sub>가 <측정단위> 명사들이라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인식속성>들과 구별된다.

20) Giry-Schneider, J. (1996:7-8).

21) Le Pesant, D. (1996) 참조.

- (24) a. 그 집은 넓이가 (30 평 + 84 제곱미터)이다.  
     b. 마을 뒷산의 산책로는 총 길이가 (1500 미터 + 3 킬로미터)란다.  
     c. 이 자루의 무게는 (800 그램 + 3 킬로그램 + 1 톤)이다.
- (25) a. 그 집은 색깔이 (\*30 평 + \*84 제곱미터)이다.  
     b. 마을 뒷산의 산책로는 경치가 (\*1500 미터 + \*3 킬로미터)란다.  
     c. 이 자루는 모양이 (\*800 그램 + \*3 킬로그램 + \*1 톤)이다.

<크기> 명사가 속성 중에서도 측정의 대상이 되는 속성인 까닭에 한국어 <크기> 명사는 측정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재다’나 ‘측정하다’와 특징적으로 결합한다.

- (26) a. 어머니가 식탁의 (길이 + 높이 + 폭)-을 쟠다.  
     b. 정비공이 자동차의 (공기압 + 속도 + 오염도)-를 측정했다.  
     c. 기능공이 새 기계의 (압력 + 부피 + 무게)-를 (잰다 + 측정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동사와 결합할 경우에 <크기> 명사는 생략이 어려워 보인다. 이 점에서 <부여속성> 술어와 결합하는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 (27) a. 어머니가 식탁 (?\*E + 길이)-를 쟠다.  
     b. 이 식탁은 (E + 길이가) 1.5 미터이다.
- (28) a. 정비공이 자동차 (?\*E + 속도)-를 측정했다.  
     b. 이 자동차는 (E + 속도가) 시속 80 킬로미터이다.

한편, 한국어 <크기> 명사는 다른 <속성> 명사들과 마찬가지로 사행의 시간적 전개, 즉 과정적 (processif) 성격을 전제하는 시간표현들과 결합할 수 없다.

- (29) a. 식탁의 (\*길이 + \*높이 + \*폭 + \*깊이) 동안에, 나는 밥을 먹었다.  
     b. 나는 그런 (\*압력+ \*부피 + \*무게 + \*규모) 중의 기계가 좋다.

또한, <크기> 명사는 <인식속성>에 속하는 만큼 자신과 관련된 <부여속성>을 답으로 원하는 의문문을 구성할 때는 생략되어서는 안 되고 의문사 ‘어떠하니’와 결합한다. 뿐만 아니라 ‘얼마니’와도 결합할 수가 있는데 이점도 다른 <인식속성> 명사들과 <크기> 명사를 구별해 주는 중요한 속성이라 할 수 있다.

- (30) a. 그 집은 (크기 + 면적 + ?\*E)-가/이 (어떠하니 + 얼마나) ?  
     - 40 평이야.
- b. 저 차는 (속도 + ?\*E)-가 (어떠하니 + 얼마나) ?  
     - 시속 80 킬로미터야.
- c. 그 네 가방은 (무게 + ?E)-가 (어떠하니 + 얼마나) ?  
     - 30 킬로그램이야.
- d. 저 연못은 (깊이 + ?E)-가 (어떠하니+얼마니) ?  
     - 3 미터래.

<크기> 명사는 <인식속성>으로서 자신의 속성과 관련한 값을 나타내는 <부여속성> 술어 부류와 상관관계를 맺고 문장 내에서 공기한다. 이때, <부여속성>을 표상하는 명사는 해당 <크기> 유형에 고유한 <측정단위> 명사들이다.

- (31) a. 이 목장은 넓이가 (3000 평 + 10000 제곱미터 + 20 헥타아르)다.  
     b. 이 다리는 길이가 (2500 미터 + 3 킬로미터)란다.  
     c. 이 자루는 무게가 (800 그램 + 3 킬로그램 + 1 톤)이다.  
     d. 이 제품은 소비전력이 (30 와트 + 5 킬로와트)이다.

한국어의 경우 <크기> 유형에 따라 그에 고유한 형용사들이 <부여속성>을 표상한다.

- (32) a. 이 목장은 넓이가 (넓다 + 좁다).  
     b. 이 다리는 길이가 (길다 + 짧다).  
     c. 이 자루는 무게가 (무겁다 + 가볍다).  
     d. 이 제품은 소비전력이 (많다 + 적다).

### 3.3. 프랑스어 <크기> 명사의 통사속성

프랑스어 <크기> 명사들도, 한국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식속성>으로서의 통사행태를 공유하면서 측정의 대상이 되는 속성과 관련된 통사행태들을 아울러 보인다. 즉, 프랑스어 <크기> 명사들은 측정행위를 지칭하는 동사 ‘mesurer’나 <크기> 값을 표현하는 <측정단위> 명사들과의 결합 가능성으로 특징지어 진다.

## 【표 6】 프랑스어 &lt;크기&gt; 명사의 통사속성

㉠ 기본구문 : N<sub>0</sub> avoir Dét Npréd (\*E + Adj)

N<sub>0</sub> avoir Dét Npréd de X N<unités de mesure>

㉡ 동사 mesurer와의 결합 가능성 :

⇒ N<sub>0</sub> mesurer Npréd de N<sub>1</sub>

㉢ 과정적 사행을 전제하는 시간표현과의 결합 불가능성

㉣ 의문문 구성 : quel 의문문 및 combien 의문문

㉤ 의미적 상관관계를 갖는 형용사 술어 구문의 존재 여부

프랑스어 <크기> 명사들은 <인식속성>에 속하는 만큼 서술작용의 불완전성을 갖는다. 그런 까닭에 ‘N<sub>0</sub> avoir Dét Npréd Adj’ 구문의 Npréd 자리에 부가 형용사를 필수적으로 동반하여 나타나거나, 혹은 <측정단위> 명사를 보어로 동반한 ‘N<sub>0</sub> avoir Dét Npréd de X N<unités de mesure>’ 구문의 Npréd 자리에 나타나는 통사행태를 보인다.

- (33) a. Ce paquet a un poids (\*E + important + considérable).  
 b. Cette voiture a une longueur (\*E + importante + considérable).  
 c. Le TGV a une vitesse (\*E + formidable + très élevée).  
 d. Cet étang a une profondeur (\*E + importante + effrayante).  
 e. Ce livre a un volume (\*E + important + considérable).  
 f. Cette montagne a une (\*E + grande + belle) altitude.
- (34) a. Cette rivière a une (largeur + profondeur) de 7 mètres.  
 b. Cette tour a une (hauteur + longueur) de 25 mètres.  
 c. Ce courant a une intensité de 4 ampères.  
 d. Ce sac a un poids de (500 grammes + 20 kilos).

이때 함께 나타나는 부가 형용사나 <측정단위> 명사구 보어는 모두 환기된 <인식속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여 서술작용을 완료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부여속성>에 속하는 술어들로 분석할 수가 있다.

<크기> 명사들은 또한 측정대상이 되는 속성들을 지칭하는 까닭에 이들 명사는 모두 동사 mesurer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 (35) a. Ina a mesuré la (longueur + largeur + profondeur) de la table.  
 b. Max a mesuré (la hauteur + l'altitude) de la montagne.  
 c. Ils voulaient mesurer (le poids + la puissance) de ma voiture.

이때에도, 한국어의 경우보다는 덜 하지만, <크기> 명사를 쉽게 생략할 수는 없다. 비문 혹은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이 되거나 해석 가능한 모든 속성의 측정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 (36) a. Ina a mesuré (??E + la longueur de + la profondeur de) l'étang.  
 b. Max a mesuré (??E + la hauteur de) cette montagne.  
 c. Ils n'arrivaient pas à mesurer (??E + le poids de + la puissance de) cette machine.

한편, 프랑스어 <크기> 명사들도 속성부류에 속하는 만큼 시간표현과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 (37) a. une (\*brève + \*courte) puissance  
 b. un poids (\*prolongé + \*durable)

- (38) a. Pendant sa (\*longueur + \*largeur + \*hauteur), cette bibliothèque plaisait énormément à Max.  
 b. Avant son (\*poids + \*envergure + étendue), Léa n'admirait pas cette machine.

프랑스어 <크기> 명사들도 그 속성과 관련한 구체적 답을 얻고자 구성하는 의문문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고 그때 의문사는 QUEL이다.

- (39) a. Quel est (??E + le poids de) ce colis ?  
 [⇒ Ce colis pèse 2 kilos.]  
 b. Quelle est (??E + la longueur de) cette voiture ?  
 [⇒ Cette voiture mesure 1,50 mètre.]

(39)에서처럼 의문사가 속사위치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의문사가 <크기> 명사의 한정사 위치에 나타나는 의문문을 구성할 수도 있다.

- (40) a. Quel poids a ce colis ?  
 [⇒ Ce colis pèse 2 kilos.]  
 b. Quelle longueur a cette voiture ?  
 [⇒ Cette voiture mesure 1,50 mètre.]

또한, 크기명사들의 일부는 의문사 *combien*과 결합하여 의문문을 구성하기도 한다.

- (41) a. La largeur de cette rivière est de combien ?  
 b. Le poids de ces bagages est de combien ?  
 c. De combien est la hauteur de cet immeuble ?

물론, 의문사 *comment*을 취하는 의문문의 답으로 <크기> 속성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정보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주어와 관련된 정보 획득을 위해 <크기> 명사 없이 의문문을 구성할 경우, 이 의문문은 *comment*을 의문사로 취하게 되는데, 그 답으로는 다양한 <부여속성>을 밝히는 문장들이 나타날 수 있다.

- (42) Comment est ce sac ?  
 [⇒ Ce sac est (joli+grand+cher+lourd + de 2 kg +...).]

프랑스어 <크기> 명사들도 자신이 지칭하는 <인식속성>에 대한 서술작용을 위해 해당 인식속성에 고유한 다양한 표현들과 결합이 가능하다. 즉, <크기 인식속성>과 상관관계를 맺는 다양한 <크기 부여속성> 표현들과의 결합이 가능하다. 예컨대, *poids*에는 *gramme*, *kilogramme*, *tonne* 등 무게에 고유한 다양한 단위 명사들이나 *lourd*, *léger* 등의 형용사들이 대응되는데 이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빈번히 결합하다.

- (43) a. Ce sac est d'un poids de 15 kilogrammes.  
 b. Le poids de ce sac est de 15 kilogrammes.  
 c. Ce sac est lourd de 15 kilogrammes.  
 d. Ce sac pèse 15 kilogrammes.  
 e. Ce sac pèse (lourd+léger).

## 4. <크기> 명사의 하위부류

### 4.1. <크기 인식속성>과 <크기 부여속성>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크기> 명사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각 서로의 공통되는 통사·의미 속성들에 의해 <인식속성> 명사들의 한 부류로 정의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언어의 <크기> 명사들이 모든 속성을 공유하는 균질한 집합을 이루지는 않는다. 이들 <크기> 명사들은 그들이 지칭하는 <인식속성>의 유형에 따라 보다 세밀한 하위부류들로 다시 한 번 분할될 수 있다. 이러한 <크기> 명사의 하위분류에는 앞에서 보았던 <크기 인식속성>과 <크기 부여속성> 사이의 상관관계가 큰 역할을 한다.

예컨대, 프랑스어 <크기 인식속성> 명사 *longueur*의 경우, <크기 부여속성> 명사에 속하는 <측정단위> 명사들 중에서 길이단위를 나타내는 millimètre, centimètre, mètre, kilomètre, mm, cm, m, km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또한 long, court 등 길이와 관련된 속성값(혹은 크기값)을 표상하는 형용사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명사 *longueur*가 이들 <크기 부여속성> 술어들과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빈번히, 특징적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44) a. Ce fil a 2 mètres de longueur.
- b. La longueur de cette planche est de 60 centimètres.
- c. Cette table est longue de 150 centimètres.

이러한 상관관계는 한국어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크기 인식속성>에 속하는 명사 ‘길이’는 <크기 부여속성>에 속하는 <측정단위> 명사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마일’, ‘피트’, ‘인치’ 등이나 관련 크기의 값을 나타내는 형용사 ‘길다’, ‘짧다’와 특징적으로, 그것도 다양한 환경에서 결합한다.

- (45) a. 이 다리는 길이가 (2500 미터 + 3 킬로미터)-이다.
- b. 이 다리의 길이가 (2500 미터 + 3 킬로미터)-이다.
- c. 이 다리 길이가 (2500 미터 + 3 킬로미터)-이다.
- d. 이 다리는 길이가 (2500 미터 + 3 킬로미터)-가 된다.
- e. 이 다리는 길이가 (길다 + 짧다).
- f. 이 다리의 길이가 (길다 + 짧다).
- g. 이 다리 길이는 (길다 + 짧다).

이렇게 두 언어 모두에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근거로 <길이>와 관련한 속성부류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가 있다.

【표 7】 프랑스어 <길이>(longueur) 속성부류들의 상관관계

□ Soit les constructions :

- $N_0 \text{ avoir } Dét \text{ Npréd } (\text{Adj} + *E)$
- $N_0 \text{ avoir } Dét \text{ Npréd de } X \text{ N<unités de mesure>}$
- $N_0 \text{ mesurer } Npréd \text{ de } N_1$

□ Si  $Npréd \in \langle \text{Pr. identifiantes de } longueur \rangle$

$$\Rightarrow \text{Adj., N<unités de mesure>} \in \langle \text{Pr. attributives de } longueur \rangle$$

[표 7]은 다음을 의미한다. 즉, 상기 세 구문에 나타나는 술어명사  $Npréd$ 가 <길이 인식속성> 부류에 속할 경우, 함께 나타나는 부가형용사와 <측정단위> 명사들은 <길이 부여속성> 부류에 속한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한국어의 경우에도 유효하다. 단,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한 상관관계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표 8】 한국어 <길이> 속성부류들의 상관관계

□ Soit les constructions :

- $N_0\text{-의 } Npréd\text{-의 } (\text{Adj} + \text{N}<\text{측정단위}>\text{-이다})$
- $N_0\text{-의 } N_1\text{-의 } Npréd\text{-를 } (\text{재다} + \text{측정하다})$

□ Si  $Npréd \in \langle \text{길이 인식속성} \rangle$

$$\Rightarrow \text{Adj., N}<\text{측정단위}> \in \langle \text{길이 부여속성} \rangle$$

[표 8]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된다. 즉, 상기 두 구문에 나타나는 술어명사  $Npréd$ 가 <길이 인식속성> 부류에 속할 경우, 함께 나타나는 술어형용사와 <측정단위> 명사들은 <길이 부여속성> 부류에 속한다.

상기한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우리는 <크기> 명사의 하위부류를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살피기 전에 여기서 다음 사항을 우선 지적해 두도록 한다. <크기 인식속성> 부류와 <크기 부여속성> 부류 간의 이러한 상관관계와 이 두 부류의 특성들을 고려할 때, <크기 인식속성> 명사들을 주어 논항과 <크기 부여속성> 술어를 논항으로 요구하는 제 2층위 술어로 분석될 수 있다. 한편, <크기 부여

속성> 명사들은, 이 부류에 속하는 형용사들처럼, 자기 자신이 직접 문장의 주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제 1층위 술어로 분석된다.

#### 4.2. 한국어 <크기 인식속성>의 하위부류

앞에서 살펴보고 정리한 <크기 인식속성>과 <크기 부여속성> 사이의 통사·의미적 상관관계를 활용하면 <크기 인식속성> 부류의 명사들을 크기의 유형에 따라 보다 세밀한 하위부류들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이 그 예이다.

【표 9】 한국어 <크기 인식속성> 명사의 하위부류 예

- <길이>-가 길다/짧다  
ex. : 길이, 기장, 지름, 반경, 전장, 가로, 세로, etc.
- <높이>-가 높다/낮다  
ex. : 높이, 파고, 고도, etc.
- <거리>-가 멀다/가깝다  
ex. : 거리, 간격, 격차, etc.
- <넓이>-가 넓다/좁다  
ex. : 넓이, 면적, 표면적, etc.
- <크기>-가 크다/작다  
ex. : 크기, 규모, 부피 etc.
- <양>-이 많다/적다  
ex. : 양, 적설양, 운동량, 강우량, etc.
- <힘>-이 세다/약하다  
ex. : 힘, 수력, 압력, 전압, 압력, etc.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크기 인식속성> 명사의 하위부류들은 다양한데, 이 부류들은 모두가 각 부류에 고유한 적정형용사<sup>22)</sup>에 의해 구분되었다. 예를 들어, <길이> 부류는 ‘길다’와 ‘짧다’, <넓이> 부류는 ‘넓다’와 ‘좁다’와 특징적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물론 이 외에도 <인식속성>, <크기 인식속성>

22) 대상부류 이론에서는 대상부류의 정의에 사용되는 술어나 기능동사들을 각각 적정술어(prédicats appropriés), 적정기능동사(supports appropriés)라고 부른다. 여기서 말하는 적정형용사(adjectifs appropriés)는, 따라서, <길이>, <높이>, <거리> 등의 부류들의 정의에 사용된 형용사들을 칭한다. 각주 (6)과 (7)의 저작 참조.

으로서의 공통적 통사속성들도 각 부류의 기술에는 반영이 된다. 여기서는 부류의 분할방식과 부류 간의 차이를 보이기 위해서 약식으로 제시되었다.

#### 4.3. 프랑스어 <크기 인식속성>의 하위부류

동일한 방식으로 프랑스어의 <크기 인식속성> 부류를 하위분류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한국어와 동일하지만, 하위분류의 근거가 되는 통사속성들이 프랑스어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차이를 보일 뿐이다.

【표 10】 프랑스어 <크기(grandeur)> 명사의 하위부류 예

- 
- <longueur>-Nom être long/court  
ex. : *longueur, diamètre, demi-diamètre, totale, largeur, etc.*
  - <hauteur>-Nom être haut/bas  
ex. : *hauteur, hauteur des vagues, altitude, degré de hauteur, etc.*
  - <distance>-Nom être loin/proche  
ex. : *distance, intervalle, écartement, etc.*
  - <largeur>-Nom être spacieux/étroit, resserré  
ex. : *largeur, étendue, superficie, etc.*
  - <grandeur>-Nom être grand/petit  
ex. : *grandeur, envergure, dimension, volume, etc.*
  - <quantité>-Nom il y a beaucoup de/peu de  
ex. : *quantité, quantité de neige, quantité de mouvement, etc.*
  - <force, énergie>-Nom être fort/faible  
ex. : *force, énergie hydraulique, pression, pression électrique, poigne, etc.*
-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프랑스어의 <크기 인식속성> 명사들도 각 부류에 고유한 적정형용사들과의 결합을 근거로 다양한 하위부류로 분류된다. 예컨대 <길이 longueur> 부류는 형용사 long과 court, <힘 force>의 경우는 fort나 faible와의 결합가능성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크기 인식속성> 명사 부류들의 적정 형용사는 해당 인지속성과 상관관계를 맺는 <크기 부여속성> 부류에 속하는 점에 다시 한 번 주목하자. 바로 이러한 상관관계가 <크기 인식속성> 부류와 <크기 부여속성> 부류의 목록 확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인식속성>과 <부여속성> 간의 이러한 상관관계는 <색>, <모양>, <방향> 등 다른

유형의 <인식속성>과 <부여속성>의 대상부류 구축과 어휘 기술에도 확대,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 5. 맷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와 프랑스어 <크기> 명사들의 통사·의미 속성에 대한 대조 연구를 위해 <크기 인식속성> 부류와 그 하위부류들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 <크기 인식속성>에 속하는 부류들과 <크기 부여속성>에 속하는 부류들 사이에 나타나는 통사·의미적 차이점과 함께 이들 부류 간의 통사·의미적 상관관계도 아울러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크기 인식속성>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의 <크기> 속성을 한정해 주는 반면 <크기 부여속성>은 말하고자 하는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명시해 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과, 또한 이러한 의미와 기능의 차이로 인해 이들 두 부류의 어휘들이 통사행태 상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예컨대, 프랑스어의 *longueur*나 *poids* 같은 <크기 인식속성> 명사들은 *No avoir Dét Npréd* 구문에 나타날 때 부가형용사 *Adj*나 *N<unités de mesure>*로 된 명사보어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와 프랑스어, 두 언어 모두에서 관찰된다.

<크기 인식속성> 부류와 <크기 부여속성> 부류 간의 이러한 상관관계와 통사·의미 속성의 차이는, 또한, <크기 인식속성>을 제 2층위 술어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즉, <크기 인식속성> 명사들은 주어 논항 외에 <크기 부여속성> 부류에 속하는 술어들도 함께 논항으로 요구하는 만큼 제 2층위 술어로 분석될 수 있고, <크기 부여속성> 명사들은, 같은 부류에 속하는 형용사들처럼, 자기 자신이 문장의 주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므로 제 1층위 술어로 분석될 수 있다.

이렇듯, 한국어와 프랑스어 <크기> 명사의 대상부류를 구축하는 과정은 이들 각 언어의 <크기> 명사의 통사·의미 속성을 명확히 밝히고 기술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런 까닭에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크기> 명사들의 통사·의미 속성에 대한 대조 연구가 이들 명사에 대한 한·불 병렬 대상부류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연구 결과를 보다 심화·확장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크기> 명사에 대한 한·불 병렬 대상부류를 구축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과 과정은 <크기> 속성 외의 다른 유형의 속성과 관련된 어휘들은 물론이고, 그 외 [상태]나 [행위], [사건] 등 다양한 술어부류에 속하는 다른 어휘들의 한·불 대조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노윤채 (1999), “기능동사와 서술명사에 대하여”, 「한국불어불문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불어불문학회, 217-229.
- 이성현 (2001), “전자사전 구축을 위한 언어기술의 한 방법: 대상부류”, 「언어학」 30, 한국언어학회, 185-206.
- 이성현 (2006), “불어 ‘대칭’ 명사의 통사·의미론적 특성 연구: ‘대칭’ 명사의 대상 부류 구축”, 「인문논총」 56,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77- 332.
- 이성현, (2007), “세종 전자사전의 어휘의미부류 체계”, 「새국어생활」 17-3, 국립국어원, 51-67.
- 이성현 (2009), “세종 전자사전 개발의 성과와 전망”, 「새국어생활」 19-1, 국립국어원, 59-77.
- 이성현 (2010), “프랑스어 발화명사의 통사·의미 속성에 관한 연구: 프랑스어 발화명사의 대상부류 구축”, 「프랑스어문교육」 제33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357-388.
- Anscombe, J.-C. (1995), “Morphologie et représentation événementielle: le cas des noms de sentiment et d'attitude”. *Langue française* 105. Paris: Larousse. 40-54.
- Cordier, F. et François, J. (2002), *Catégorisation et langage*, Paris: Hermès Science Publications.
- Eshkol, I. (2002), Typologie sémantique des prédicats de parole, Thèse de doctorat. Villetaneuse, Université Paris 13.
- Flaux, N. & Van de Velde, D. (2000), *Les noms en français: esquisse de classement*, Paris: Ophrys.
- Giry-Schneider, J. (1991), “Noms de grandeur en avoir et Noms d'unités”, *Cahiers de Grammaire* 16, Université de Toulouse-Le Mirail, 27-49.
- Giry-Schneider, J. (1996), “Sélection et sémantique: problèmes et modèles”, *Langue française* 105, Paris: Larousse, 5-14.
- Gross, G. (1992), “Forme d'un dictionnaire électronique”, *L'environnement traductionnel*, Sillery/Montréal: Presses de l'Université du Québec. 255-272.
- Gross, G. (1994), “Classes d'objets et description des verbes”, *Langages* 115, Paris: Larousse, 15-30.
- Gross, G. (1996), “Prédicats nominaux et compatibilité aspectuelle”. *Langages* 121,

- Paris: Larousse, 54-72.
- Gross, G. (2012), *Manuel d'analyse linguistique. Approche sémantico-syntaxique du lexique*, Villeneuve d'Ascq: Presses universitaires du Septentrion.
- Gross, M. (1975), *Méthodes en syntaxe*. Paris: Hermann.
- Gross, M. (1981), "Les bases empiriques de la notion de prédicat sémantique", *Langages* 63, Paris: Larousse. 7-52.
- Gross, M. (1998), "La fonction sémantique des verbes supports", *Travaux de linguistique* 39, Bruxelles: Duculot, 25-46.
- Kokochkina, I. (2004), Typologie des prédicats d'états, Thèse de doctorat. LLI, Université Paris XIII.
- Lamprou, E. (2005), Les noms de «réciprocité» en français, thèse de doctorat, LLI, Université Paris XIII.
- Le Pesant, D. (1996), "Vocabulaire des prédicats de grandeurs et des noms d'unités de mesure". *Les Cahiers de Grammaire* 21, Université de Toulouse, Toulouse: Le Mirail. 45-74.
- Le Pesant D. & Mathieu-Colas, M. (1998), "Introduction aux classes d'objets", *Langages* 131. Paris: Larousse, 6-33.
- Lee, S.-H., (2001), Les classes d'objets d'événements. Pour une typologie sémantique des noms prédictifs d'événement en français, thèse de doctorat, LLI, Univ. Paris 13.
- Lee, S.-H. (2003), "Some Problems in Constructing Semantic Classes for Korean Predicate Nouns", *Language Research Special Issue*, Seoul: Language Research Institute, SNU, 77-93.
- Lee, S.-H. (2009), "A propos des noms de propriétés en coréen", *Current Issues in Unity and Diversity of Languages*,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 Péchoin, D. (1992), *Thésaurus*, Paris: Larousse.
- Vivès, R. (1983), Avoir, prendre, perdre: construction à verbe support et extensions aspectuelles, Thèse de troisième cycle, LADL, Université Paris VIII.

<Abstract>

## Contrastive Study of the Nouns of Size in Korean and French: A Preliminary Research for the Parallel Construction of Their Object Classes

Seong Heon Lee

The present article examines the syntactic and semantic properties of the nouns of size in Korean and French—*gili* (length), *nopi* (height), *neolbi* (area, width), *muge* (weight), etc. in Korean and *longueur*, *hauteur*, *largeur*, *poids*, etc. in French—and build a parallel set of object classes for the two languages with a view to a contrastive study of those nouns. Thereby, it aims to show that the theory of object classes is relevant to the contrastive study of languages.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takes the following steps. First, it overviews the construction of the nouns' object classes in Korean and French and, in so doing, clarifies the rationale of studying the nouns of size: the classes for the nouns of state need to be revised for an appropriate analysis of the nouns of property. Next, it examines the syntactic and semantic properties of the Korean and French nouns of size to show that they belong to the class of identifying properties, and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m and the predicates of the class of attributive properties of size—for example, between the nouns of measurement and the adjectives indicating size values, such as *long*, *court*, and *étendu*. Finally, this article presents some of the subclasses of the nouns of size, which is built on the basis of the above-mentioned correlation.

Key Words: nouns of size, nouns of property, identifying properties, attributive properties, nouns of measurement

논문 접수: 2013.11.07

논문 수정: 2013.11.23

게재 결정: 2013.12.07